



이동찬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강화되는 이민단속

.....

2017년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공공안전 향상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 행정명령은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여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대상으로 만들었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사법부와 국토안보부에게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지역에 연방지원금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심한 범죄자와 국가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를 추방대상으로 우선화했다. 그러므로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가족이 있는 외국인인 미정부의 기소재량권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대상으로 우선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면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기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정부혜택 프로그램을 남용한 외국인, 추방명령을 받은 후 떠나지 않은 외국인,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인 추방대상의 우선이 된다. 밀입국 또한 기소될 수 있는 범죄이고 행정명령에 불법이민자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별도로 언급되어 있어 모든 서류미비자가 사실상 추방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이민단속을 강화하기위해 287(g) 계약을 늘리라고 지시한다. 287(g)는 지방 경찰관에게 연방이민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민법 조항이다. 지방경찰관은 287(g) 계약에 따라서 외국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추방소송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다. 이전에 287(g) 계약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오바마 정부에서 그 사용도를 축소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단속을 강화하기위해 행정명령은 이민세관단속 요원을 10,000명 더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 요원을 10,000명 더 고용한다면 이민

세관단속 요원의 수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대상으로 만드니 단속 요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법부와 국토안보부에게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는 지역에는 연방지원금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민법을 시행하거나 외국인의 형사 케이스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없다. 연방정부에 협조를 하지않는다고 연방지원금을 보류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기에 벌써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가되는 이유는 첫째, 나라든은 국회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없고, 둘째, 연방정부는 연방법을 실행하기위해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셋째, 연방정부는 벌써 허가된 연방지원금에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수 없고, 넷째,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정부의 임의적인 결정을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당한 법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

종차별과 위헌적인 문제가 있어 중단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국토안보부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감옥에서 이민자의 손지문을 공유하고 이민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실행하기위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행지침서를 2017년 2월 20일에 하달했다. 지침서에는 누구든지 이민법을 어겼다면 추방대상이 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DACA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DACA는 어렸을 때 부모와 미국에 입국을 해서 서류미비자가 된 청년들에게 취업허가증과 추방유예를 허락하는 프로그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APC.)
www.isaacleelaw.com
상담예약 (213) 291-9980